

두동강 난 어선... 뱅소니 선박 추적

진도 해상서 충돌후 도주한 듯 목포해경, 실종자 탐색 수색작업

진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중간 부분이 끊어져 두 동강 나 선원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목포해경은 4일 낮 12시 40분께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남쪽 22km 해상에서 신안선적 9.77t 연안자망어선 대광호가 전복돼 표류 중인 것을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이 발견, 신고해움에 따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사고 원인은 뱅소니? = 목포해경은 경비정, 헬기를 동원해 확인한 결과, 대광호가 두 동강 난 채 선미의 경우 진도에서, 선수는 10km 떨어진 안도해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타실이 있는 선미 부분의 지붕과 엔진은 사라진 상태로 선체 뼈대만 남아 있었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해경은 지난 3일 밤 9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이 해역을 항해한 5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항로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목포항에 입항한 선박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밤샘 수색 작업, "살아만 있어라" = 목포해경은 경비함 8척, 항공기 2기를 동원해 야간에도 인근 해역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신고를 받은 직후부터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종 소식을 전해들은 선원 가족들의 생사를 묻는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콜센터 차려놓고 '햇살론' 대출사기

전남경찰, 11명 적발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한 대출 사기단이 지난해 공범이 검거된 뒤에도 사무실을 옮겨 범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른바 작업비를 챙긴 혐의(사기)로 남모(37)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다른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등은 지난 1월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사금융 조회건수, 신용등급 등을 조작해 은행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대출금의 20~25%를 전산 작업비 명목으로 챙겨 76명

으로부터 1억 1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시민에게 10%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 정책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꾸미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말 이같은 방식으로 19억원을 챙긴 일당 9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남씨 등은 공범들이 검거되자 청량리에서 송인동으로 사무실을 옮겨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원침 (8766)



충남교육감 사전영장 신청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김중성(64) 충남도 교육감에 대해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들에게 1000만~3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에게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훈 나주시장 사전 영장

구속여부 이번주중 결정

검찰이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과 관련 임성훈 나주시장을 구속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사채) 30억원 어치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다.

W사 측은 이를 상환했으나 W사는 임 시장이 실질적 사주여서 회사채 매입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또 임 시장은 미래산단과 신도 남평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자격이 없는 업체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나주시에 각각 1658억원과 400억원 등 모두 205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G인베

스트먼트 관계자와 임 시장과 함께 업무상 배임에 관여한 나주시청 공무원 등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시장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두해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최근 투자비용을 지방채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로 끌어온 뒤 77억원의 수수료를 자문회사에 지급하고 시행사를 위해 투자보증을 한 과정 등에서 임 시장이 나주시에 손실을 끼쳤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미래산단은 나주시 왕곡면 일대 180여 만㎡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되며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스트먼트 관계자와 임 시장과 함께 업무상 배임에 관여한 나주시청 공무원 등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시장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두해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최근 투자비용을 지방채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로 끌어온 뒤 77억원의 수수료를 자문회사에 지급하고 시행사를 위해 투자보증을 한 과정 등에서 임 시장이 나주시에 손실을 끼쳤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미래산단은 나주시 왕곡면 일대 180여 만㎡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되며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개소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가운데 4일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가 광주 동구 운림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흥기든 가방 휘둘렀다 동거녀 사망

○~40대 남자가 휘두른 가방 안의 흥기에 깔려 동거녀가 숨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

○~순천경찰은 4일 동거녀를 흥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데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30분께 순천시 남정동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귀가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B씨와 딸다툼을 벌이던 중 흥기를 넣었던 가방을 휘둘러 안에 있던 흥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어께 등을 깔려 B씨가 사망.

○~흥기는 평소 낚시를 즐기던 A씨가 횡간 손질을 위해 가방에 넣어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가 살인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판단, 일단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자재한 경위를 조사중. /순천=김은경기자 ejkim@

난동 주한미군 "비비탄 쏘다" 시인

도주 미군 경찰 진술

심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과 시민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광주일보 3월 4일자 7면 보도)를 받는 미군 중 한 명인 C(26) 하사가 비비탄 총을 쏘고 도주한 사실을 4일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C하사는 조사에서 "비비탄 총을 쏘고 경찰 검

문에 불응해 차를 타고 도주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D(23)일병이 모는 차에 동승한 C하사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하사는 지난 3일 용산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는 "어떤 아랍인에게 차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로부터 "미군들이 나를 겨냥해 (비비탄 총을) 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연합뉴스

이 신고자는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려고 했을 때 보니 조수석에는 여자가 앉아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용산구 문배동에서 찾아낸 이들의 차량에서 비비탄 알 30여개를 발견했으며 1차 감식을 마치고 정밀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차량을 보냈다.

/연합뉴스

"매춘부라니..."

위안부 할머니들, 日 록밴드 고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 등의 표현으로 모욕한 일본 록밴드를 피해자 할머니들이 검찰에 고소했다.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측은 일본 록밴드 '櫻亂舞流'(엔란 무류)에 대한 피해자 8명 명의의 고소장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협박 등이다.

나눔의 집 측은 지난달 28일 보낸 이 '櫻亂舞流', 받는 이 'house of sharing'(나눔의 집)이라고 적힌 노란색 국제우편 봉투를 받았다.

봉투에 담긴 동영상 CD에는 "매춘부 할머니들을 죽여라",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동해표를 없애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 밴드는 유튜브에도 태극기와 한국인을 모욕하는 영상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1억대 교비 횡령 전 교직원 불구속

목포경찰은 6년동안 1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목포의 한 여중학교 회계 담당 전 직원 박모(여·40)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4일 불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이 보관한 학교 회계 계좌 직인을 이용, 교비를 출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6년 동안 1억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2013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모집

예쁜글씨 POP & 폰아트	스토리텔링과 어린이독서지도	모집기간: ~2013. 3. 8(금)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점핑클레이	
리더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성격분석 도형상담	

노인심리상담사
가정사역상담사

www.kwangshin.ac.kr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3월 중 개강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